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9월 14일(수) 총 4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당자	• 한국이민사박물관 김 상 열 ☎440-4701 • 담당자 윤 현 진 ☎440-470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전 멕시코 에네켄 가공 기계 전시로**  
**인천과 멕시코 굳건한 우호 다져**  
**-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 멕시코 에네켄 기계 전시관, 9월 20일 개막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에네켄 기계 전시관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네켄 기계는 선인장과 식물의 하나인 에네켄에서 섬유질을 추출해내는 기계로, 추출된 섬유는 선박의 로프 등을 만드는데 쓰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는 에네켄 농장과 산업이 성행했고, 여기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멕시코로 떠난 것이 한인 최초의 멕시코 이민이다.

1905년 4월 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돼 제물포에서 영국 상선 일포드호를 타고 40일이 넘는 항해 끝에 멕시코 메리다 지역에 도착한 1,000여 명의 한인들은 20여개가 넘는 에네켄 농장에 배치돼 고된 노동을 했지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돈을 모아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에 보태며 고국에 공헌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한인 이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당시 이민자의 삶을 상징하는 에네켄 기계를 2006년 멕시코 현지에서 수집해, 조사와 보존처리, 전시관 건축 공사를 끝내고 오는 20일 개막식을 개최한다.

개막식에는 인천시의회 의장과 주한 멕시코 대사 등의 인사가 참석해 전시관 개막을 축하하고, 1905년 이민으로 시작된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돈독하게 할 예정이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에네켄 기계는 우리 선조들의 멕시코 이민자로서의 삶을 상징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준비를 거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한인 이민의 다양한 역사를 살펴보시길 바란다.” 며, “아울러 올해는 한국과 멕시코 국교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인천시와 멕시코 메리다 시가 자매도시를 체결한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작은 전시관의 개관이지만 이로써 양국의 우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개막식 및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이민사박물관(☎ 032-440-4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관련 사진



### 멕시코 에네켄기계 전시관 개막식 초청장

올해는 우리 선조들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던 첫 공식 이민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선조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떠난 지 117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05년 4월, 1,300여 명의 한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금의 제물포에서 미지의 땅 멕시코를 향해 떠났습니다. 긴 항해 끝에 멕시코에 도착한 이들은 대농장에서 에네켄 일을 수확하는 고된 노동을 하였고, 어려운 살 속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에네켄 일에서 심유를 뽑아내는 에네켄기계를 새롭게 전시합니다. 에네켄 기계는 2006년에 수집되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존처리가 실시되어 시민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에네켄 기계 전시관의 개막이 한인의 멕시코 이민 역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유 동 현

일시 2022.9.20.(화) 15:00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야외 에네켄기계 전시관

### Invitación a la apertura de la exposición de máquinas de henequén de México

Este año se conmemoran 120 años de la emigración oficial de nuestros antecedentes, desde el puerto de Incheon a Hawai. Asimismo, aunque no es ampliamente conocido, se cumplen 117 años desde que nuestros antecedentes emigraron a México. En abril de 1905, unos 1,300 coreanos partieron de Jemulpo hacia las desconocidas tierras de México en busca de una vida mejor. Después de pasar por un largo viaje, se dedicaron a la ardua tarea de cosechar hojas del henequén en grandes haciendas, y a pesar de su dura vida, recolectaron dinero para aportar a los movimientos de independencia de su patria.

El Museo de la Historia de la Emigración Coreana inicia una nueva exposición de máquinas de henequén, que extraían fibras de las hojas del henequén. Las máquinas de henequén fueron recolectadas en el año 2006, pasando por un proceso de mantenimiento y preservación hasta el corriente año y serán exhibidas al público. Además, este año se cumplen 60 años del establecimiento de relaciones diplomáticas entre Corea y México, haciendo de este evento más significativo. Espero que la apertura de esta sala de exposiciones de máquinas de henequén sea una oportunidad para dar a conocer ampliamente la historia de la emigración coreana a México.

You Dong-hyun,

Director del Museo de la Ciudad Metropolitana de Incheon

Fecha 20.09.2022 (Martes) 15:00

Lugar Sala de exposiciones de máquinas de henequén del exterior del Museo de la Historia de la Emigración Coreana

